

2024년 4월 11일

KIWOOM 이슈 분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퀀트/ESG 이성훈 sh1076@kiwoom.com

22 대 총선 결과와 미국 CPI 쇼크의 증시 영향

SUMMARY

- ✓ (전략) 국내 22 대 총선은 여소야대로 끝이 났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 미국의 3 월 CPI 쇼크로 맞으면서 매크로 민감도가 높아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1 분기 실적시즌이 순조롭게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전망. 향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출현하는 기간 조정을 이용해 1)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과대 저 PBR 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
- ✓ (퀀트) 밸류업 종목의 주가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정세가 가팔랐던 밸류업 종목의 저가매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낙폭과대 측면에서 연초 고점 이후 1) 기관 순매도, 2) 밸류에이션 중심 조정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낙폭과대 밸류업 종목을 선정

전략: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연속성, 양호한 실적 시즌을 감안 시 매크로 불안 장세를 반도체, 저 PBR주로 대응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국내 총선은 특정 후보인들의 정치 테마주들을 만들어내는 등 일부 중소형주들에게 한정해 영향을 미치는 재료였으나, 이번 22대 총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결부된 이슈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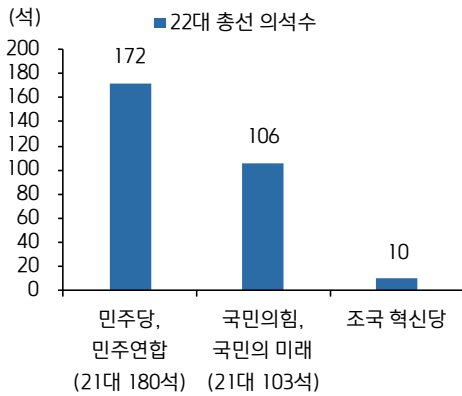
22대 총선 결과를 먼저 확인해보자면, 개표율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연합이 172석, 국민의 힘 연합이 106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으로 끝이 났다(총선 전 예상 의석수가 민주당이 “120~153석+알파”, 국민의 힘 “105~140석+알파”). 기존 정치구도 상 여당의 의석수가 크게 변한 것이 없기는 해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여야당의 주요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와 양도소득세 완화(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등 법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을 놓고,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 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은행, 자동차, 증권 등 저 PBR 업종의 주가 향방과 직결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으나, 그 안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미 4월 중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요기업들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최종 가이드라인도 5월로 앞당겨지는 등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는 낮은 주주환원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 동학개미운동의 기점으로 유권자 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0대 이상 국내 유권자 중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14%에서 2023년말 30%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ISA 비과세 혜택 강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소액주주 권리 향상 정책과 같은 사안들의 경우, 야당도 찬성하는 것 역시 주식투자를 하는 유권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25년 금투세 도입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 PBR 업종이 반도체, 바이오처럼 증시 전체를 견인하는 주도 업종으로 격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는 주도 테마로서 유효할 전망이다. 또 은행, 자동차, 증권 등 주요 저 PBR 업종의 주가는 3월 중 고점 대비 10~20%이상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했으며, 기관의 수급도 비어 있는 등 주가 상 진입 매력이 부각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한국 22대 총선 결과(전국 개표율 9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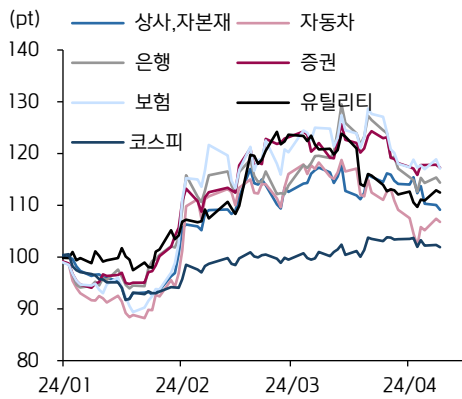
출처: 선관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여야의 자본시장 총선 관련 공약 비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 약속	금투세 폐지에 반대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납입한도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 국내투자형 ISA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 적용 ISA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추가 납입한도 연 3,000만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까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연기 검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허용 현물 ETF 매매수익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 현물, 선물 ETF의 ISA 편입 허용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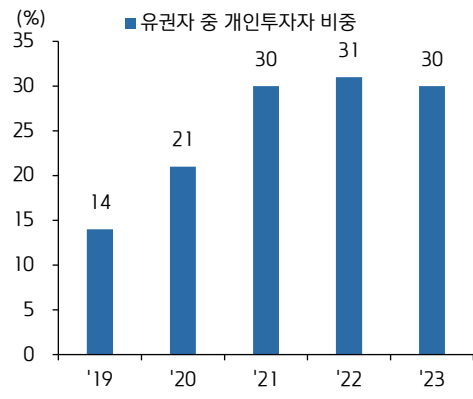
출처: 언론 종합, 예탁결제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저 PBR 업종의 추가 추이



출처: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유권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 증가



출처: 통계청, 예탁결제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요 내용 업데이트

정책	세부내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월 7일 자문단 출범. 2월 26일 세부계획 발표 및 1차 세미나 진행.
	3월 19일,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공개. 자사주 소각, 배당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 계획.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를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3월 22일,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 구체화 및 앞당김.
	4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 실시 예정. 4월 첫째 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표기업 대상 간담회부터 시작.
	4월, 한국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및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 개발 및 점검 마치고 2차 세미나에서 논의할 예정
	4월 2일,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분 간담회 개최,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강화 추진 -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 감사인 지정면제 심사 가점 부여, 상장 유지 위한 연부과금 및 거래소 수수료도 면제, - 분기배당도 '배당금 결정 후 주주확정' 위해 법 개정 추진
	4월 4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 개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4월 15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한상의 산하 금융산업위원회와 삼성 등 회원 기업 CEO 들을 대상으로 강연
	4월 3주차(중견기업), 4주차(성장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 예정
	5월,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최종발표 예정(가이드 라인 확정 시기 6월-) 5월로 앞당겨짐)
	7월부터 코스닥,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1년에 한 차례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 예정
	9월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말까지 코리아 밸류업 추종하는 ETF 출시

출처: 언론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사실 최근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면서 증시가 하락 추세로 반전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정책의 모멘텀 역시 제 몫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수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 주는 완충장치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밸류업 플레이에도 유인책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10일(수) 미국의 CPI는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각각 3.5%(YoY, 컨센 3.4%), 3.8%(YoY, 컨센 3.7%)로 3개월 연속 쇼크를 기록했다. 당사는 과거의 증시 패턴을 참고해 1) 코어 CPI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2) 헤드라인 CPI가 컨센 대비 0.1~0.2%p 상회한다면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3월 CPI는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증시에 위험회피심리 현상을 초래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쇼크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과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 10년물 금리는 4.5%대에 진입하는 등 매크로 불안이 높아진 실정이다.

이를 감안 시 당분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섹터가 복잡하게 일어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은 수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세가 제한이 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연은 인플레이션 모델에서도 4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각각 3.43%, 3.65%대로 3월에 비해 내려갈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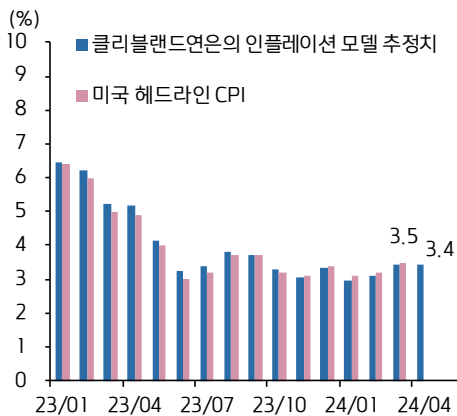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주가 본연의 함수인 실적 측면에서도 증시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제한시킬 요인들이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4분기 때와 달리,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분기 실적시즌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에도 우호적인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월 9일 기준 코스의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56.5조원으로, 지난해 연말 262조원에서 3월초 249조원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 재차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코스피 영업이익 및 한국 수출에 선행하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신규주문(2월 49.2 -> 3월 51.4), 중국의 3월 제조업 신규주문(2월 49.0 -> 3월 53.0)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향후에도 이익 전망 개선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는 한동안 연준의 정책 전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주식시장에 완충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 22대 총선은 여소야대로 결정됨에 따라, 세법 및 상법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는 제약적인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권자 중 주식투자자 비중이 큰 폭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총선 결과를 기반영해 급락한 자동차, 은행, 증권 등 주요 저 PBR주는 진입 매력이 높아진 시점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쇼크를 맞으면서 매크로 민감도가 높아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시즌이 순조롭게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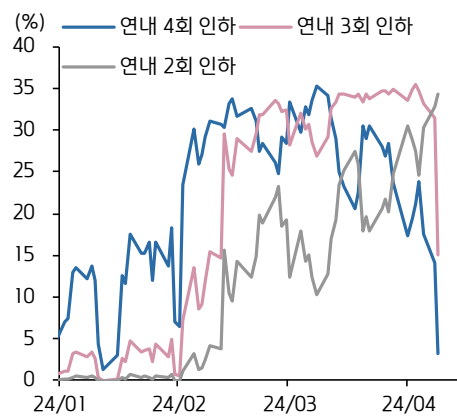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출현하는 기간 조정을 이용해 1)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 과대 저 PBR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3월 CPI, 3개월 연속 쇼크. 하지만 2분기부터는 하락 경로로 복귀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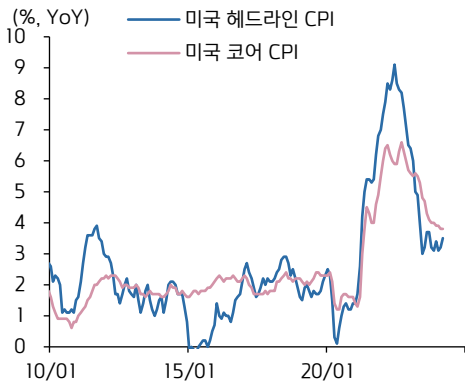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내 연준의 금리인하 횟수에 따른 확률 변화, 최근 연내 2회 인하 전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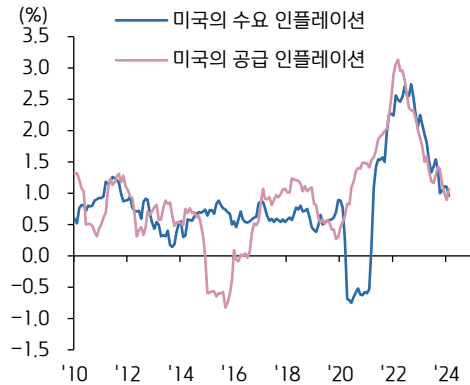
출처: CME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의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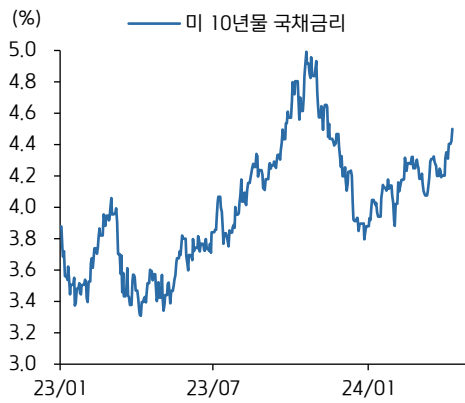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한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대에 다시 도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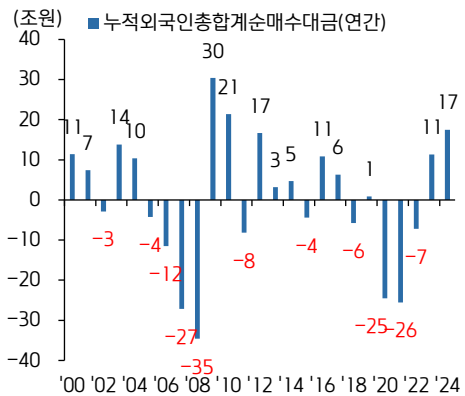
이전과 달리 채권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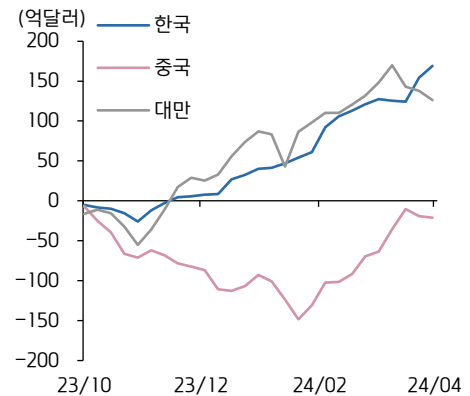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코스피 연간 순매수, 역대 3위 수준. 연초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시장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작업은 현재 진행형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아시아 국가 자금 누적 유출입을 보면, 아시아 증시 내에서 글로벌 펀드들의 한국 증시 편식 현상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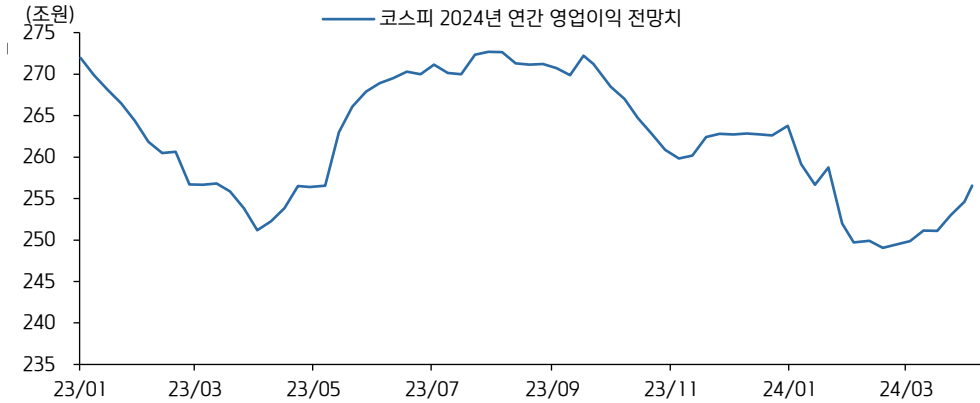


출처: Quanti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출처: 국제금융센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력기업 1분기 호실적,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수입 수요 등으로 연간 코스피 영업이익의 전망 재차 턴어라운드 중



출처: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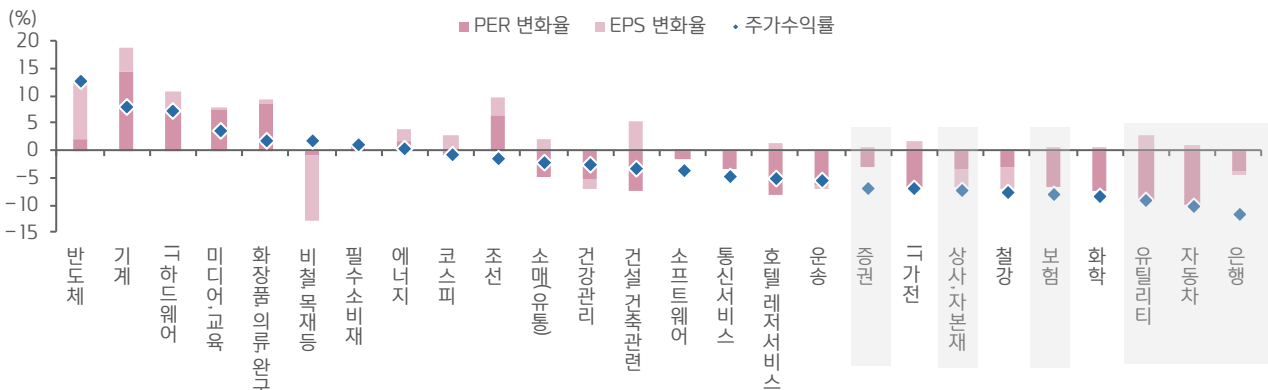
퀀트 : 총선 불확실성 해소 이후 밸류업 종목의 저가매수 기회를 고려할 때

연초 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처음 언급한 이후 밸류업 테마 내 종목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다. 다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밸류업 종목들이 단기 조정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은 IT, 전력기기 등 실적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밸류업 대장주 역할을 하였던 기아, 현대차, KB금융 등 주요 밸류업 종목들은 대부분 고점 대비 약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었던 3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12.7%), 기계(+8.2%), IT하드웨어(+7.3%) 등의 업종이 코스피를 크게 상회하였다. 반면, 은행(-11.7%), 자동차(-10.1%), 유틸리티(-9.2%), 보험(-8.1%), 상사, 자본재(-7.3%), 증권(-6.7%) 등의 밸류업 관련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해당 기간 증가수익률을 PER과 EPS로 분해해서 보면, 밸류업 업종의 주가 하락은 대부분 실적 전망 하향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에 기인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즉,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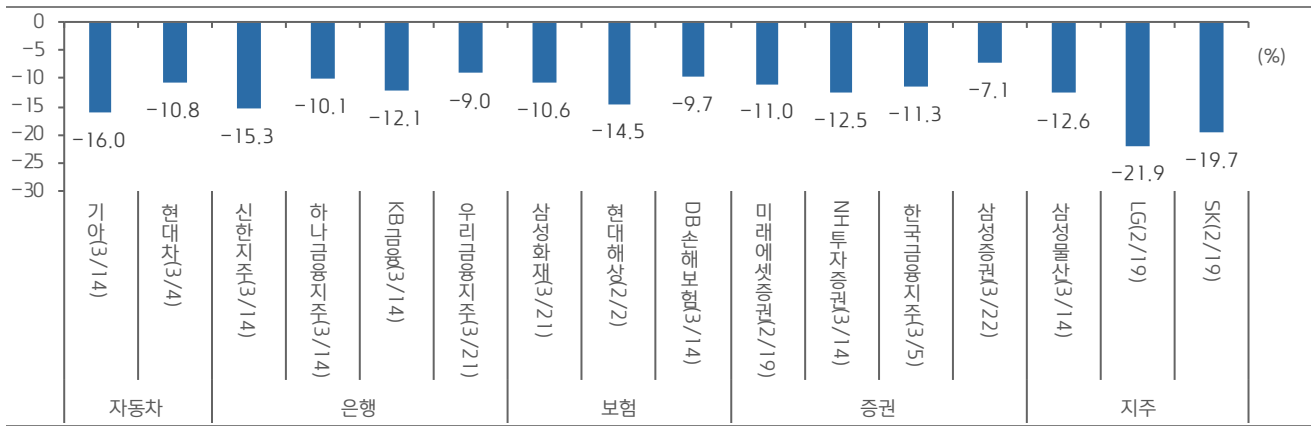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22대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간 밸류업 테마의 주가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폭과대 측면에서라도 밸류업 종목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투자자 보호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하반기 밸류업 지수 등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 세부 일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시 내 관련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총선 불확실성 해소와 차익실현 매물이 상당부분 출회된 현 시점은 올해 주도주 역할을 할 주요 밸류업 종목들의 저가매수 기회라고 판단한다.

3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업종별 수익률, PER, EPS 변화율 비교 : 밸류업 업종의 밸류에이션 중심의 조정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밸류업 종목들의 고점 대비 주가하락을 비교(괄호 안의 날짜는 각 종목의 연초 이후 주가 고점일자)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단순히 국내 고유의 밸류업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봐도 현재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증시 상황이다. 최근 유가, 원자재 상승은 재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으며, 여전히 견고한 경기 상황은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증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선을 터치했으며 시장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은 증시 국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종목과 같은 가치주가 재차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밸류업 종목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까? 낙폭과대 측면에서 주도 매도 주체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종목을 선정해낼 수 있다. 첫번째 기준은 **기관의 순매도** 여부이다. 연초 이후 밸류업 종목의 주가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수급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트레이딩 중심으로 대응함에 따라 증시 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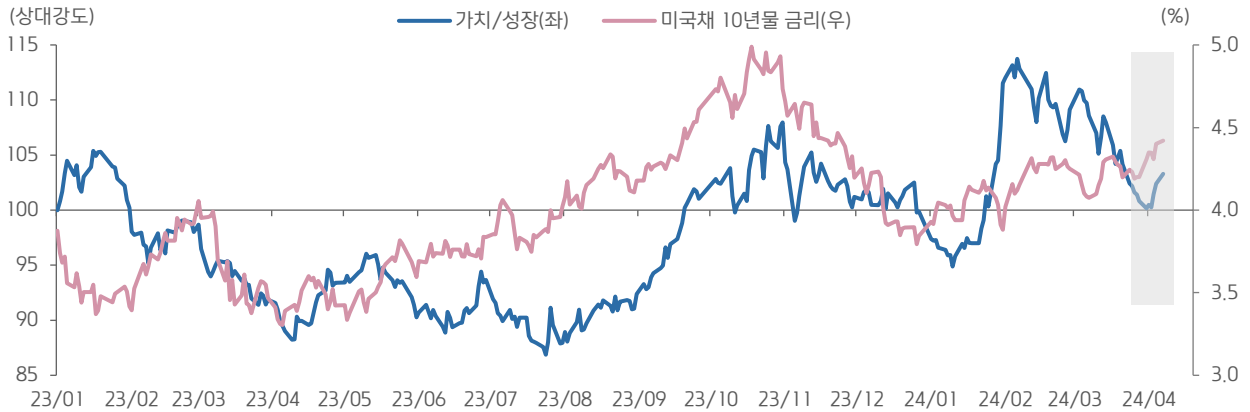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연초 이후 IT(+10.0조원)와 밸류업 종목(+6.6조원) 등 한국시장 전체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수급 탄력은 연초 대비 잦아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코리야 기조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은 IT 실적 턴어라운드와 밸류업 프로젝트에 기인하며, 두가지 모두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수급은 IT와 밸류업 종목의 하방 경직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밸류업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언급된 1월 중순 이후 기관의 수급은 IT와 밸류업 종목 간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크게 보면 현재 기관의 자금은 밸류업이라는 가치주와 반도체를 위시한 IT 성장주 간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이후 기관은 밸류업 종목의 단기 낙폭과대 인식 이후 재차 밸류업 종목을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등 IT 종목의 쓸림이 과도했다는 점을 감안시 밸류업 종목 중 기관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셌던 종목이 반등 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급 외에도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난 종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가치주 바스켓 내에서 주요 지표(거래소 언급 지표 : 'PBR, PER, ROE,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 이익모멘텀(EPS 변화율))를 통해 2월 이후 가치주 종목들의 주가동인을 살펴 보았다. 이를 보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낮거나(저 PER) 혹은 이익모멘텀이 증가하는 가치주가 양호한흐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분기 실적시즌이 도래하며 실적에 대한 주가민감도가 높은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이익지표를 반영한 PER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컸던 밸류업 종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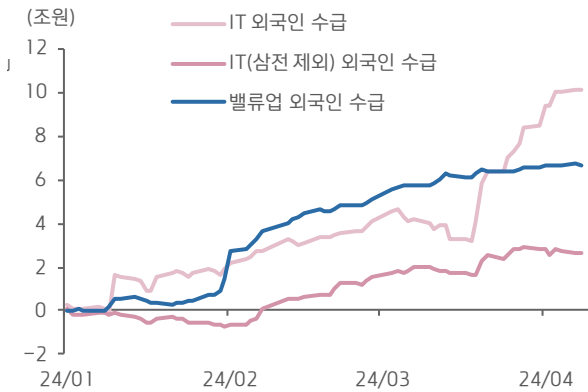
이에 총선 이후 주목해볼만한 낙폭과대 밸류업 종목을 스크리닝해보았다. WMI500 순수가치 유니버스 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중, 1) 연초 고점 대비 주가하락률이 8% 이상, 2) 고점 대비 주가하락분 중 밸류에이션(PER) 하락의 비중이 80% 이상, 3) 고점 이후 기관 중심으로 순매도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23년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가치/성장 상대강도 추이 : 3월 말 금리 상승하며 가치주 상대강세 신호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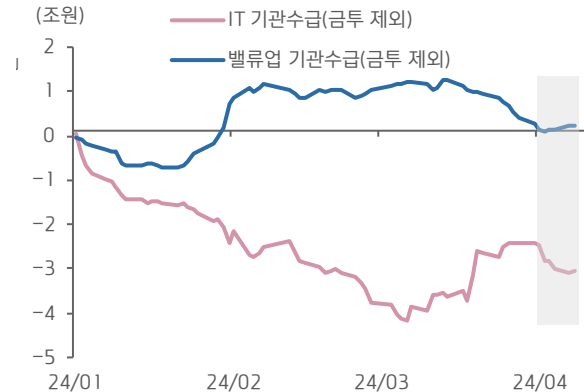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WMI500 순수가치, WMI500 순수성장 지수

연초 이후 외국인의 IT 및 밸류업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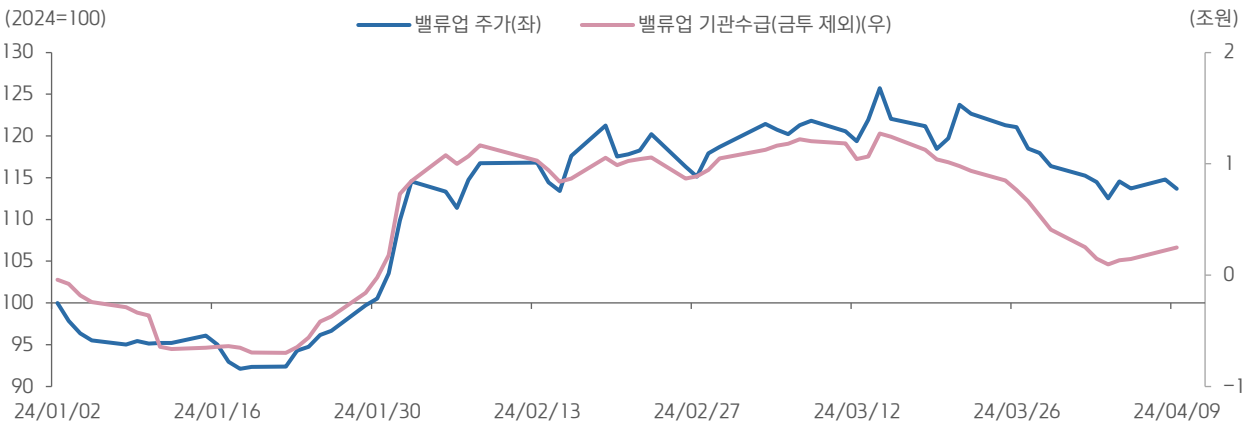


연초 이후 기관의 IT 및 밸류업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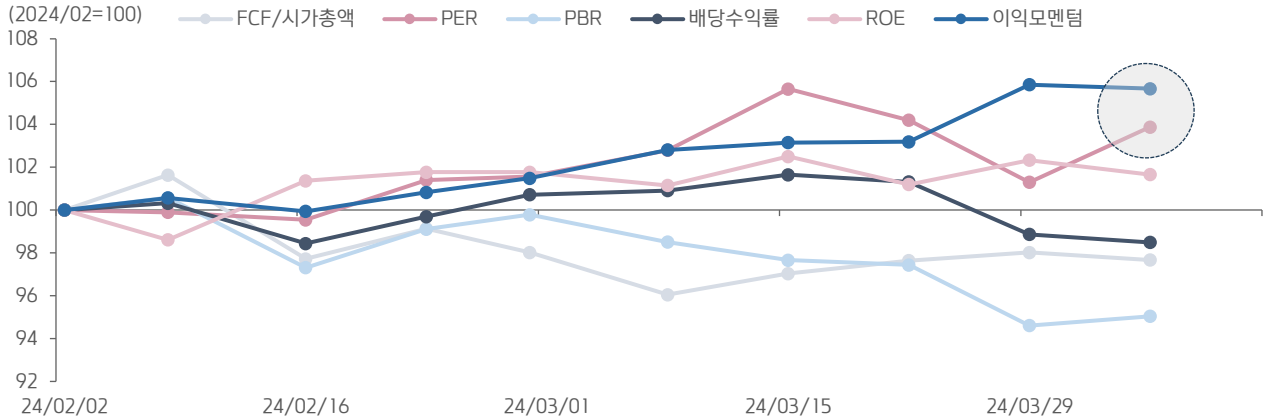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밸류업 = 은행, 증권, 보험, 지주, 자동차 업종, 기관 수급은 1월11일 은행의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 제외

연초 이후 밸류업 업종 평균 주가와 기관 수급 추이 : 밸류업 주가의 방향성은 기관 수급과 동행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밸류업 주가 = 연초 이후 은행, 증권, 보험, 지주, 자동차 업종의 평균 주가

가치주 바스켓 내 2월 이후 주요 팩터 민감도(L-S) 추이 : 이익을 반영하는 PER 및 이익모멘텀 팩터에 민감도 높음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WMI500 순수가치 유니버스 기준

스크리닝) 낙폭과대 측면에서 주목해볼만한 밸류업 종목 리스트

종목코드	기업	W126 업종 분류	시가총액 (십억원)	P/B	P/E	연초 이후 고점일자 (일)	연초 추가 고점 이후			기관 순매도강도 (%)
				Fwd.12M (배)	Fwd.12M (배)		주가 변화율 (%)	PER 변화율 (%)	EPS 변화율 (%)	
A005380	현대차	자동차	48,229	0.57	5.1	3/4	-10.8	-13.0	2.5	-0.1
A000270	기아	자동차	43,421	0.76	4.8	3/14	-16.0	-16.1	0.1	-0.3
A105560	KB금융	은행	27,883	0.43	5.5	3/14	-12.1	-10.1	-2.2	-0.3
A028260	삼성물산	상사,자본재	27,709	0.7	11.6	3/14	-12.6	-12.7	0.1	-0.7
A086790	하나금융지주	은행	16,986	0.39	4.5	3/14	-10.1	-9.9	-0.2	-0.6
A000810	삼성화재	보험	14,520	0.75	7.8	3/21	-10.6	-11.3	0.7	-0.1
A003550	LG	상사,자본재	12,710	0.45	8.0	2/19	-21.9	-20.4	-2.0	-0.2
A024110	기업은행	은행	10,598	0.31	3.7	3/14	-15.4	-16.3	1.1	-0.8
A316140	우리금융지주	은행	10,329	0.3	3.5	3/21	-9.0	-8.7	-0.3	-0.2
A030200	KT	통신서비스	9,361	0.5	7.5	2/19	-13.7	-13.1	-0.7	-0.9
A005830	DB손해보험	보험	6,790	0.56	4.2	3/14	-9.7	-10.3	0.6	-0.4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운송	6,555	0.75	5.5	2/28	-9.4	-10.0	0.5	-0.1
A006800	미래에셋증권	증권	4,780	0.41	8.8	2/19	-11.0	-14.2	3.8	-0.5
A004020	현대제철	철강	4,284	0.21	7.2	2/7	-13.2	-13.4	0.2	-0.1
A005940	NH투자증권	증권	3,791	0.48	6.4	3/14	-12.5	-14.0	1.9	-0.3
A011780	금호석유	화학	3,520	0.5	9.1	2/19	-23.7	-27.0	4.6	-2.0
A001450	현대해상	보험	2,749	0.33	2.6	2/2	-14.5	-12.7	-2.0	-2.4
A175330	JB금융지주	은행	2,468	0.44	3.8	3/7	-9.7	-10.5	0.9	-0.7
A000150	두산	상사,자본재	2,454	1.52	14.9	3/18	-8.3	-12.5	4.7	-0.2
A002380	KCC	건설,건축관련	2,213	0.33	9.8	3/8	-14.6	-43.3	50.5	-0.8
A023530	롯데쇼핑	소매(유통)	2,014	0.21	7.8	2/7	-21.8	-22.6	1.1	-1.1
A051600	한전KPS	유틸리티	1,589	1.16	10.1	2/19	-9.4	-10.1	0.8	-0.4
A011210	현대위아	자동차	1,542	0.42	7.5	2/2	-12.1	-16.4	5.3	-3.1
A001740	SK네트웍스	상사,자본재	1,239	0.51	11.5	2/8	-30.7	-46.7	30.1	-1.8
A069960	현대백화점	소매(유통)	1,201	0.23	5.5	2/5	-14.4	-14.0	-0.5	-0.2

출처: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관 순매도강도 = 기관 순매수/시가총액*100

Compliance Notice

-당사는 4월 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 중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